

복음으로 글로컬하게 세상에 다가가는 교회

(Engaging communities globally with the Gospel)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행 1:1-11)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말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꼭 외국어가 아니라 같은 언어로 말을 해도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십대 자녀와 대화를 시도하는 부모는, 같은 언어로 대화를 해도 자녀와의 사이에 큰 장벽을 느낍니다. 이민자들의 경우는 자녀들과 모국어가 다르기 때문에 가지는 소통의 어려움이 더해 집니다. 단순히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의사 소통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 체계나 문화적인 프레임이 다르면 상호간의 소통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삼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사십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 이 ‘사십 일’이라는 제한된 시간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십 일’간의 이야기를 누가는 단 한가지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입니다.

예수님은 사십 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치심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복음을 배운자들답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답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입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나라”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제자들이 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임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영똥하게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일을 오해하여 이스라엘 민족적 차원의 일로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을 동거동락하며 끊임없이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그의 통치를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그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즉 이 땅의 나라의 회복의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언어, 복음의 언어를 이해하기 힘들어 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힘들어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가난과 불평등의 문제, 미움과 다툼과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불편해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대하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는 답답한 제자들 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한 순간을 기점으로 바로 이 사실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변화의 시점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그 때가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오실 성령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 14:26)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모두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해의 핵심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렇게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에 의해 확장되게 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부터 시작되었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 결국 땅끝까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전해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온 회중이 상호의존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와 같은 공동체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지난 4주간 우리가 다뤘 온 우리 교회의 사명인 S.H.I.N.E의 첫 네가지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향해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마치 어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을 날아가는 법을 배우면,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동지를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가듯, **성령을 받아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제 말과 행실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S.H.I.N.E 사명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복음으로 글로컬하게 세상에 다가가는 교회” (Engaging communities globally with the Gospel)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S.H.I.N.E의 다섯번째 사명에는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컬 (glocal)**이란 단어입니다. 글로컬 (glocal)이라는 말은 ‘지역적’이라는 의미의 ‘local’과 ‘세계적’이라는 의미의 ‘global’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미 국어사전 ‘신어’ 자료집에도 등록될 정도로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화, 세계화와 함께 현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도 글로컬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바로 그들의 로컬이었습니다. 이 로컬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배웠습니다. 성령을 통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즉 로컬의 경계를 넘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확장합니다.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모든 영역이 그들에게 글로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로컬을 넘어서 글로컬의 영역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글로컬한 비전이 자리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글로컬한 선교의 사명을 전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선교”라고 생각하면 아마존 정글과 사자와 코끼리, 그리고 식인종이 있는 아프리카를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그러니까 선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멀고 먼 오지로 들어가, 목숨을 걸고 일하다 순교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을 향해 가는 일을 계속해야 하지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제는 놀랍게도,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땅끝이 바로 우리 곁에 찾아와 있습니다.

2010-2011 academic year의 통계를 보면, 당시 미국에 있는 유학생의 숫자는 723,277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새로 유학 온 학생이 214,490명이었습니다. 중국 유학생은 전년도에 비해 23.5퍼센트, 사우디 아라비아 유학생이 43.6 퍼센트, 이란이 18.9 퍼센트, 베트남이 13.5 퍼센트나 늘어났습니다.

2014-2015년 통계를 찾아보니 그 숫자는 더 늘어나서 이제 대학생, 대학원생 유학생 숫자는 974,92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4년 사이에 유학생 숫자가 무려 25만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으로,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으로 선교사로 나가지 않더라도 이미 그들이 우리 곁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학생들이 우리에게 찾아 온 땅끝이 아닐까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트 싱 (Bakht Singh)은 북부 인도에서 북미로 유학 온 시크 교도였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던 중 한 크리스찬 부부를 만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싱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인도로 다시 돌아가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에 무려 700개 이상의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 찾아 온 ‘땅 끝’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선교의 사명을 이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기이든, 장기이든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히려 이민자의 입장에서 다른 이민자들에게 다가갈 때 백인들 보다 유리한 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다가가기 원하는 세상은, 해외(global)는 물론이고,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역(local) 또한 포함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지역과 해외의 구분이 사라진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진정한 복음을 배우고 익혀, 우리가 있는 지역과 해외를 아우르는, 보다 폭 넓은 범위에서 글로컬(glocal)하게 세상에 다가가는 교회가 되길 꿈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다섯번째 사명을 “복음으로 글로컬하게 세상에 다가가는 교회”로 정한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을 뉴욕의 리더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Gospel Messag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행함으로 전하는 것을 “Gospel Neighboring”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사역, 즉 복음을 말로 전하는 Gospel Messaging의 사역과 행실로 전하는 Gospel Neighboring의 사역, 두 가지 모두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을 향해 글로벌하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고, 단기 선교를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찾아와 있는 땅끝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Gospel Messaging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Gospel Neighboring의 사역 또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는 Gospel Messaging은 이해할 수 있는데, 복**

음을 우리의 행실로 전하는 Gospel Neighboring의 사역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하형록 회장(저서-P31)은 Gospel Neighboring의 사역을 경영의 측면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13세에 목사이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민을 오게 된 이분은 유펜을 졸업하고, 워커 파킹 컨설턴트라는 큰 규모의 건축회사에서 유색인으로서 유일하게 29세에 중역이 되었습니다. 그가 중역이 되었을 때 200명이 넘는 그 회사에서 그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은 불과 10여명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젊은 시절을 보내던 중, 심장에 이상이 생겨 생사를 넘나드는 엄청난 위기를 경험합니다. 심실빈맥이라는 병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했는데, 성공적으로 이식을 받더라도 1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불과 20퍼센트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두 차례에 걸친 심장이식 수술에 성공했고, 매일 한 움큼씩의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사를 경영해, 그의 회사 “팀하스”는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큰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심실빈맥 (심장이 아주 빨리 뛰어서 터질 지경이 되거나, 반대로 펌프질을 멈추어 버리는 등 비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심장 질환)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 병원에서 발견한 성경적 경영의 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잠 31장의 원리였습니다.

잠 31장 20절 말씀을 핵심으로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 정신은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We exist to help those who in need**)는 것입니다. 이런 창업 정신에 근거해, 하 회장은 처음부터 직원들에게 구호 단체에 직접 들어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라고 권유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모두 한두군데 이상의 구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호 활동을 격려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웃을 돕는 것도 삶을 통해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 회장은 팀하스의 성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비즈니스를 하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고객과 직원들, 그리고 이웃들을 돌보는데 힘썼다. 영업을 위해 달콤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러자 주님이 좋은 분들을 고객으로 보내 주실 뿐 아니라 세상과 가족에게 칭찬을 받는 축복도 주셨다. 이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성공의 비결이다”

복음은 우리의 말과 행실로 중단없이 글로컬하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원리도 하형록 회장의 팀하스와 같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어려운 이들의 구체적 필요를 채워줌으로 복음을 행실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Dynamic 한 영이십니다. 그가 계신 곳에는 항상 Movement 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의 총동으로 격분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신을 차리자 조금 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베라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 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의 제자들이 세운 각 교회들 마다 장로들을 택하여 영적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하신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유학생으로, 난민으로, 이민자로 미국에 왔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거나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고, 또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글로벌하게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 온 교회가 힘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밖으로는 (globally) 지난 15년간 아르헨티나, '위치 부족' 선교를 충실히 감당해 왔습니다. 만만치 않은 재정, 이주일 가량 직장에 휴가를 얻어야 하는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매년 달려가, 물도 전기도 없는 오지의 원주민들을 진료하고, 상담하고 기도해 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르헨티나 선교에 동참하셨던 믿음의 선배들께서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매년 많은 희생을 해야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과 주민들을 생각하면 힘든 그 길을 다시금 떠날 힘이 생긴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locally) 우리 교회는,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주변에 네팔에서 온 14,000명의 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모든 것을 버려야 했고, 결국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땅에 던져졌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난민이 된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Food bank 사역이나 주빌리 키친 사역, 청소년들 중심으로 섬겼던 Nursing Home 사역 등에서 더 나아가, 보다 힘차게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피츠버그를 섬기는 기독교 단체들과 힘을 합쳐 결혼 가정의 빈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에도,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지역 사회의 이러한 필요를 가진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와 선교의 기회를 성도님들께 찾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지역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배운 우리는 이제, 글로벌하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할 날갯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 날갯짓이 서툴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두 명의 날갯짓이 작은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함께 복음으로 날갯짓을 할 용기를 줄 수는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한 두 명이, 또 한 두 셀이 복음을 말과 행실로 전하는 이 일에 동참하면 또 다른 셀이, 더 많은 셀이, 그리고 결국 온 교회가 함께 복음으로 지역 사회와 세계를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기뻐하심을 확신합니다.

Cell Bible Study

마음의 문을 열며

예전에는 “선교”라고 생각하면 아마존 정글과 사자와 코끼리, 그리고 식인종이 있는 아프리카를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그러니까 선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멀고 먼 오지로 들어가, 목숨을 걸고 일하다 순교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을 향해 가는 일을 계속해야 하지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제는 놀랍게도,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땅끝이 바로 우리 곁에 찾아와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S.H.I.N.E 비전의 마지막 사명인 복음전파와 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사도행전 1:3절 말씀을 읽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누가는 어떻게 요약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 제자들은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느 한 순간을 기점으로, 사고와 가치 기준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까? (행 1:8, 요 14:26)

4. 나에게도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갖게 된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행 1:8). 이 사명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세상은, 해외 (Global)는 물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Local) 또한 포함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글로벌’(Glocal)이라고 말합니다.

5. 그렇다면 글로벌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현재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동참하고 있거나, 동참하기 원하는 사역이 있으십니까?

삶의 열매를 거두며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온 회중이 상호의존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와 같은 공동체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공동체**입니다.

S.H.I.N.E 비전의 마지막 다섯번째 비전은 “**복음으로 글로벌하게 세상에 다가가는 교회**” (Engaging communities glocally with the Gospel) 입니다. 성령을 받아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제 말과 행실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